

#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영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Impact of Spirituality on Clinical Practic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오나래\*, 김해경\*\*

포항대학교 치위생과\*,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Na-Rae Oh(nalae761@hanmail.net)\*, Hae-Kyoung Kim(khk9548@dhc.ac.kr)\*\*

###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영성을 알아보고 영성이 임상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도구는 영성, 임상실습스트레스, 일반적 특성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조사는 K지역에 위치한 치위생과 재학생 280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과 임상실습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치위생과 재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영성, 전공만족도, 학과성적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성적일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치위생과 재학생의 영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구체적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위생과재학생에 대한 영성과 임상실습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이에 대처할 전략적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 중심어 : | 치과위생사 | 영성 | 스트레스 | 임상실습 | 임상실습 스트레스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pirituality of dental hygiene and students and examined whether it affects the stress that may occur during clinical practice. The research tool consisted, clinical practice stresse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It was held from March to July 2019 for 280 dental hygienists and students in K area. T-test and ANOVA were conducted for differences in spiritualit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ity and clinical stress was analyzed b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s a result, dental hygien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student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pirituality,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If the motivation to apply to the department was grade, the clinical practice stress was higher.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is impossible to make a concrete comparison because previous studies on the spirituality of dental hygiene and students are insufficient. Therefore, various studies on spiritualit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for dental hygienists are needed, and strategic search will be needed.

■ keyword : | Dental Hygienist | Spirituality | Stress | Clinical Practice | Stress of Clinical Practice |

## I. 서론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는 고립감과 대인관계의 예민성, 공허감,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조사되어지며, 이는 또한 대학생의 정신 건강에 나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결과 나타났다[1]. 이러한 스트레스는 대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경험하더라도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2].

치과위생사의 직무상 업무는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질환예방치치를 제공하고 치과의사와의 협력적 진료를 통한 치과경영관리 등의 업무까지 담당업무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구강보건 전문 인력으로 정의된다[3]. 이러한 임상에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의 치위생(학)과에서는 교육과정 중 임상실습을 개설하여 치위생학 및 치의학의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임상에서의 업무를 직접 경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인 치과위생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다[4]. 이러한 임상실습은 직무능력향상의 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가져온다.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이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서는 선행연구결과 불안, 공포 등이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알려지며, 임상실습의 효율적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5].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로운 자극이 가해졌을 경우 그 행체가 나타나는 반응으로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증상이 반복되면 생리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다양한 반응을 야기 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상황에 부적응하게 되며, 전공 학습과 실습 수행에 방해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6]. 이러한 스트레스가 임상실습 시 발생하게 될 경우 임상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자신감이 결여되고 전공만족도를 낮추며 직업에 대한 긍지를 반감시키는 원인이 발생할 수 있어 이는 학습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임상실습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요인을 조사하여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7][8].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셀프리

더십, 교내외 실습 참여태도, 전공만족도, 교수효율성, 실습기관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각적 제시를 하고 있다[5][9-12].

위와 같은 배경으로 볼 때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실습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업무수행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임상에서 제공 되어지는 의로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다.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임상실습 도중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하면서도 다각적 측면에서의 중재 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정신적 측면에서의 연구 논문은 미비하여 대부분 학업특성에 국한되어있어 다각도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13][14].

최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 이를 조절하는 무형의 내적자산이 부각되고 있으며 영성이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중요한 신념과 믿음체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15]. 또한 영성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며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원이 되고[16] 우리나라의 선행연구에서는 척도개발 및 타당성검증연구는 18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는 8편에 불과했다[17]. 대만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스트레스와 영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고[18], 국내에서는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성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안녕감을 증진시킨다고 연구되었다 [16][17]. 지금까지 영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19][20],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치위생(학)과 재학생은 간호학생과 유사한 교육과정과 임상실습을 거친다. 치위생(학)과 재학생은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안으로는 장애요소나 문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대처방식인 적극적 대처방식이었다[21]. 그러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구체적 요인이나 대처방안에 대한 제시가 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영성증진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으므로 이에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영성증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중재방안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K 지역 치위생(학)과 임상실습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추출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를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적정 대상자 선정 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ffect size F(효과크기) 0.2, 검정력(1-β)=0.95, 유의수준=.05으로 일원분산분석과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대표본수가 255명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문항의 수와 참여자의 탈락률을 10%를 동시에 고려하여 총280명을 표집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연구 하였다.

### 2. 자료수집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K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치위생(학)과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의 보장과 연구 참여 자로서의 권리를 설명하고 자의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대상자가 설문도중 중단을 원하는 경우 즉각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여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였다.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 정도였고 설문 이 완성된 후 바로 회수하였다. 설문지 수집은 280부를 배부하였고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26부를 제외하고 총 254부를 최종분석 하였으며 설문 응답률은 90.1%였다.

###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Howden[22]이 개발하고 오 등[23]이 개발한 30문항의 5점 척도인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한국인에게 맞는 상황으로 개발된 영성의 척도로서 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 자비심, 내적자원, 연결성으로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응답점수는 30문항 모두 긍정문항으로 30문항의 응답점수의 평균평점을 산출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연구도구는 심[24]과 황[25]의 연구 도구를 참고하였고, 일반적 스트레스량 측정을 위하여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개발된 간이스트레스(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도구를 사용하였다[26]. 설문문항의 하위영역 항목으로는 환경요인 7 문항, 대인관계 7문항, 역할 및 활동 10문항, 이상과 가치 6문항, 진료분야별 스트레스 12문항과 BEPSI 5문항으로 총 4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임상실습 시 느끼는 요인별 스트레스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영성척도와 임상스트레스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임상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Multiple stepwis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이에 따른 영성과 임상스트레스 정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성과 임상스트레스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연구대상자 중 2학년은 48명(18.9%)으로 영성점수는  $2.98 \pm .39$ 점이었고, 3학년은 206명(81.1%)으로 영성점수가  $3.14 \pm .52$ 점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1.90(p<.05)$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평균 90점 이상인 대상자들은 46명(18.1)명으로  $3.42 \pm .47$ 점이었으며, 85~89점 대상자는 88명(34.6%)으로  $3.05 \pm .51$ 점, 80~84점 대상자는 90명(35.4%)으로  $3.07 \pm .41$ 점, 80점 이하 대상자는 30명(11.8%)으로  $2.93 \pm .57$ 점으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Spirituality and Clinical Practice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Spirituality		Stress of Clinical Practice	
				M±SD	t/F(p)	M±SD	t/F(p)
Grade	Sophomore	48	18.9	2.98±.39	-1.904 (.026*)	2.51±.48	-1.769 (.070)
	Junior	206	81.1	3.14±.52		2.66±.51	
Religion	Yes	96	37.8	3.23±.44	3.602 (.002)	2.62±.49	-.195 (.846)
	None	158	62.2	3.0±.52		2.63±.52	
Academic performance	90≤	46	18.1	3.42±.47 a	8.720 (.000**) a)b,c,d	2.57±.50	1.062 (.366)
	85-89	88	34.6	3.05±.51b		2.65±.56	
	80-84	90	35.4	3.07±.41 c		2.59±.49	
	80)	30	11.8	2.93±.57d		2.76±.42	
Satisfaction in major	satisfaction	110	43.3	3.25±.47 a	11.104 (.000**) a)b,c	2.56±.48 a	12.771 (.000**) a,b,c
	normal	130	51.2	3.03±.47 b		2.62±.48 b	
	dissatisfaction	14	5.5	2.72±.67 c		3.27±.60 c	
guidance institution	hospital	104	40.9	3.16±.52	1.399 (.163)	2.58±.57	-.125 (.227)
	Local Clinic	150	59.1	3.07±.48		2.66±.46	
High School Dance Majors	Academic	192	75.6	3.16±.52	7.583 (.006*)	2.62±.54	.170 (.681)
	Vocational	62	24.4	2.96±.38		2.65±.38	
Admission motivation	Correspond to scorec	16	6.3	2.83±.56a	3.801 (.005*) a(b)	3.09±.67 a	5.511 (.000)** a)b,d,e
	Emplyment guaranteea	174	68.5	3.18±.46b		2.60±.47 b	
	aptitude	14	5.5	2.94±.89		2.66±.58 c	
	Recommendation	40	15.7	3.01±.33		2.66±.48 d	
	et al	10	3.9	2.87±.65		2.20±.47	
Total		254	100.0	3.11±.50		2.63±.51	

p&lt;.05 \*\*p&lt;.01 \*\*\*p&lt;.001

성적이 낮아질수록 영성스트레스 점수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a)b,c).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만족인 대상자는 110명(43.3%),으로 영성은 3.25±.47점, 보통이라고 답한 대상자는 130명(51.2%)으로 3.03±.47점, 불만족 대상자는 14명(5.5%)으로 2.72±.6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결과 전공에 만족도에 만족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인 대상자들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3.27±.6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하는 대상자는 2.56±.4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출신고등학교의 전공에 따른 영성점수를 비교한 결과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은 192명(75.6%)으로 3.16±.52점,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 62명(24.4%), 2.96±.38점으로 인문계출신 고등학교 학생이 영성점수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지원동기가 취업인 대상자들 174명(68.5%)은 영성점수가 3.18±.46점으로 성적으로 지원한 학생 16명(6.3%)은

2.83±.5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적이 지원동기인 대상자의 점수는 3.09±.6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취업, 적성기타의 지원동기 대상자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P<.001).

## 2. 연구대상자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정도는 [Table 2]와 같다. 영성의 평균은 3.11±.50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자각이 3.45±.8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부심이 3.38±.73점, 삶의 의미와 목적이 3.17±.68점, 내적자원은 3.07±.61점, 초월성이 2.21±.88점으로 가장 낮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평균은 2.63±.51점이었다. 하위영역별로는 실습교육환경이 2.98±.5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일상생활스트레스가 2.77±.86점, 직업이상과 가치가 2.73±.58점, 직무역할 및 행동이 2.63±.63점, 진료분야 부담 2.38±.83점, 대인관계갈등 2.30±.63점 순이었다.

Table 2. Spirituality and Clinical Practice

	Variables	M±SD	Range(Min-Max)
Spirituality	Transcendence	2.21±.88	1.00-4.60
	Meaning and purpose of life	3.17±.68	1.00-5.00
	Compassion	3.38±.73	1.00-5.00
	Inner resources	3.07±.61	1.00-4.60
	Awareness	3.45±.80	1.00-5.40
	Connectedness	3.37±.57	1.00-5.00
	Total	3.11±.50	1.00-4.30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education environment	2.98±.58	1.00-4.98
	Coping Strategies	2.30±.63	1.00-3.86
	Role of Discretionary Behavior	2.63±.63	1.09-4.73
	work values	2.73±.58	1.33-4.33
	Medical Departments	2.38±.83	1.00-5.00
	BEPSI	2.77±.86	1.00-5.00
	Total	2.63±.51	1.29-4.36

3. 전공만족도, 영성, 임상스트레스의 상관성

본 연구에서의 전공만족도,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는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공만족도는 임상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 $r=.212, p=.001$ ). 임상스트레스와 영성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83, p=.000$ ).

Table 3. Spirituality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Major Satisfaction

Variables	Satisfaction in major	Spirituality
Spirituality	-.073 .244	1
Stress of Clinical Practice	.212 .001*	-.283 .000**

4.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영성의 하위영역인 변수들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 학년, 성적, 전공만족도를 단계적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예측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3.71, p<.001$ ), 모형의 설명력은 13.5%를 보였다( $Adj.R^2=.135$ ). 잔차 독립성에서는 Durbin-Watson 검정계수는 1.674로

자기 상관이 없었고, 분산팽창요인(VIF)은 1.125-2.630으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되어지는 회귀식은  $y=2.166+0.170 \times$  학년 $+0.013 \times$  성적 $+0.096 \times$  전공만족도 $+0.197 \times$  초월성 $-0.207 \times$  삶의의미목적 $+0.092 \times$  자비심 $-0.064 \times$  내적자원 $+0.027 \times$  자각 $-0.082 \times$  연결성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IV.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그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영성증진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중재방안으로 영성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영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학년은 평균점수가  $2.98 \pm .39$ 점이었으며, 3학년은  $3.14 \pm .52$ 점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영성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27]의 연구결과를 보면 영성의 평균점수는 3.18점이었으며, 이[28]의 연구에서는 3.89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성을 측정한 연구의 경우 [29] 3.86점으로 본 연구대상자인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경우 간호과 재학생에 비해 영성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

Table 4. The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Spirituality

	Variables	B	SE	$\beta$	t	p	VIF
General Characteristics	(Constant)	2.166	.451	-	4.799	.000	-
	Grade	.170	.086	.156	1.971	.051	1.125
	Academic performance	.013	.047	.023	.270	.787	1.352
	Satisfaction in major	.096	.060	.140	1.595	.113	1.385
Spirituality	Transcendence	.197	.051	.341	3.887	.000	1.390
	Meaning and purpose of life	-.207	.092	-.272	-2.251	.026	2.630
	Compassion	.092	.052	.151	1.763	.080	1.324
	Inner resources	-.064	.097	-.078	-.661	.510	2.505
	Awareness	.027	.050	.049	.550	.583	1.418
	Connectedness	-.082	.094	-.089	-.875	.383	1.851

년이 높아짐으로서 내재적 힘의 저장소가 쉽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지도와 노력으로 개발된다는 한 [30]의 연구를 볼 때 학년에 따라 내재적 힘의 향상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여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선행연구결과 보고된 바 있다[31]. 본 연구에서 재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2.63점이었으며 하위영역 중 실습교육 환경 항목의 스트레스점수가 2.9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장과 김[32]은 3.38점,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 등[33]의 연구는 3.60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 연구된 최[34]의 선행연구에서는 2.79점으로 본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적에 따른 영성 점수는 90점 이상인 대상자들의 경우 3.42점으로 성적이 높을수록 영성의 점수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민[35]의 선행연구에서는 성적이 높을수록 친구, 학업, 가족 계, 경제문제 등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스트레스는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성적이 높은 집단이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해결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기에 이러한 능력이 영성에 영향을 미쳐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된 것이라 사료된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대상자의 경우 영성의 점수가 3.25점이었으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72점으로 전공만족도가 높은 대상자일수록 영성의 점수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만족도의 경우 김[36]선행 연구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공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나타났는데 학과에 전공교과과목에 대한 능력이 향상됨으로 인해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며, 영성은 전공만족도가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영성이 학교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환경변화와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키므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와 균형 등을 이루려하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상호작용과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기에 [37] 서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스트레스의 경우 전공만족도가 불만족인 대상자들이 3.2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하는 대상자는 2.5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만족하는 대상자들은 학과에서 습득한 지식을 임상실습을 통하여 적용해 보려는 동기부여가 잘 이루어지며, 동기성향이 강하여 학습의 몰입과 임상실습의 적극적 대처가 향상 된다고 보고된다[38]. 이러한 능력이 스트레스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여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 임상실습 스트레스점수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출신 고등학교의 전공에 따른 영성점수는 인문계출신 학생이 3.16점,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은 2.96점으로 인문계출신 고등학교 학생의 영성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전공 선택의 경우 부모, 교사, 친구 등과 같은 주변 타인의 조언과 주어진 상황인 학교성적과 진학 가능한 고등학교의 전공제한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39]. 또한 치위생(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취업인 대상자들은 영성점수가 3.18점이었고 동기가 성적인 대상자는 2.83점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스트레

스의 경우 성적이 지원동기인 대상자 점수가 3.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적성 기타의 지원동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적성을 고려하여 치위생(학)과를 선택한 학생의 경우 기타 다른 이유로 치위생(학)과로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직업정체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결과[40]를 볼 때 직업정체감들이 임상실습 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 향상되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 V.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재학생의 영성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성, 전공만족도, 성적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또한 지원동기가 성적일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치위생(학)과의 임상실습의 선행연구를 보면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시기, 학점, 시수, 실습기관이 차이가 다르며, 임상실습에 대한 교육과정이 통일화되어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41]. 따라서 치위생(학)과 임상실습 중 나타날 수 있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첫째, 치위생(학)과는 임상실습 교과과정입문 전부터 적용할 수 있는 영성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성향상전략개발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임상실습 전 스트레스 고 위험군의 선별과정을 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임상실습에 대한 사전 집중관리프로그램(시뮬레이션 훈련)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성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비교가 불가능 한 점과 일부 치위생(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을 갖고 있다. 추후 치위생(학)과 재학생들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변수를 포함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성교육이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임상실습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하정희, 조한익, “완벽주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기효능감과 대학생의 적응과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7권, 제2호, pp.595-611, 2006.
- [2] 박주연, “불안증과 스트레스,” 산업보건, 제220권, pp.25-28, 2006.
- [3] 이항님, 임은미,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관련 불안과 피로 조사,”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31-137, 2014.
- [4] 박미영,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에 따른 만족도와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제6권, 제4호, pp.243-249, 2006.
- [5] 이종은, 김순례,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1권, 제1호, pp.98-106, 2005.
- [6] 박복순, *간호학생의 성 역할 정체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 가톨릭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7] 고성진, 강세식, 김창수, 최석윤, 김정훈,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방사선기술과학, 제34권, 제4호, pp.287-296, 2011.
- [8] 장분자, 송경희, “일부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한국위생과학회지, 제11권, 제1호, pp.81-90, 2005.
- [9] A. K. Lee, H. S. You, and I. H. Park,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Adm, Vol.21, No.2, pp.154-163, 2015.
- [10] I. S. Kim, Y. K. Jang, S. H. Park, and S. H. S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17, No.3, pp.337-345, 2011.
- [11] 윤성욱, 이은숙, 박영남,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의 구강건강관리실태에 따른 주관적 구강상태인식도와 구강건강영향지수(OHIP)의 관계,”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5권, 제4호, pp.687-694, 2015.
- [12] 한금선, 김근면, “간호대학생과 일반 여자대학생의 자존감, 건강증진 행위, 가족적응도 및 스트레스 증상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제16권, 제1호, pp.78-84, 2007.

- [13] 박미영,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에 따른 만족도와 스트레스요인에 관한 연구,” 치위생과학회지, 제6권, 제4호, pp.243-249, 2006.
- [14] 이정화, 전은숙, “일부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조사,” 치위생과학회지, 제9권, 제1호, pp.137-143, 2009.
- [15] A. Narayanasamy, “The puzzle of spirituality for nursing: a guide to practical assessment,” British Journal of Nursing, Vol.13, No.19, pp.1140-1144, 2004.
- [16] D. Baldacchino and P. Draper, “Spiritual coping strategies: a review of the nursing research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34, pp.833-841, 2001.
- [17] 정명숙, “국내 영성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제37권, 제3호, pp.385-409, 2018.
- [18] Y. C. Hsiao, L. Y. Chien, L. Y. Wu, C. M. Chiang, and S. Y. Huang, “Spiritual health, clinical practice stress, depressive tendency and health-promoting behaviors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66, No.7, pp.1612-1622, 2010.
- [19] 김숙남, “일 지역 의사와 간호사의 영성,” 정신간호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43-153, 2010.
- [20] 김숙남, 최순옥, “간호사의 죽음불안과 영성,”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101-110, 2010.
- [21] 김은솔, 최은미, 한경순, “일상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른 치주상태와 구강건강행위 통제효과,” 치위생과학회지, 제16권, 제6호, pp.472-480, 2016.
- [22] J. W. Howden,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piritual assessment sca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1992.
- [23] 오복자, 전희순, 소외숙, “한국어 영성측정도구 (S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연구,” Asian Oncology Nursing, 제1권, 제2호, pp.168-179, 2001.
- [24] 심형순,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에 관한 실태조사,” 구강생물학연구, 제27권, 제2호, pp.37-50, 2003.
- [25] 황선희, *치위생과학생이교외임상실습에서경험한스트레스요인에관한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6] 김현자,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요인*,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7] 홍성실, 홍정아, 전원희, “간호학생의 영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pp.361-369, 2013.
- [28] 이명화, “일 지역 간호대학생의 영성에 한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제11권, 제3호, pp.265-274, 2004.
- [29] L. A. Taliaferro, A. A. Rinzo, R. M. Pigg, M. D. Millrer, and V. J. Dodd, “Spiritual well-being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58, No.1, pp.83-90, 2009.
- [30] 한미희, “청소년을 위한 홀리스틱 접근의 영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색,”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제16권, 제1호, pp.151-171, 2012.
- [31] S. G. Kim, Y. K. Koo, and M. A. Jeong, “Satisfaction with major and view of profession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2, No.8, pp.248-255, 2012.
- [32] 김영임, “일부 치위생 전공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과 자기 효능감과의 관련성,”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6권, 제3호 pp.401-407, 2016.
- [33] 김인숙, 장윤경, 박수호, 송소현, “간호학생의 비판적사고 성향과 임상실습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수행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39-347, 2011.
- [34] 최정희, “일부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감에 관한 융합관계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0권, 제1호, pp.78-85, 2019.
- [35] 민희홍,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영향요인,”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1호, pp.39-47, 2017.
- [36] 김수관, 구영경, 정미애, “치위생(학)과 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전문직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8호, pp.248-255, 2012.
- [37] 홍대우, 김춘경, “청소년전인건강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제9권, 제1호, pp.67-83, 2008.
- [38] 박완주, 한지영,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교수효율성 가족지지가 임상실습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구조방정식 모형구축,”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3호, pp.365-375, 2011.
- [39] 김경근, 변수용,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제15권, 제3호, pp.1-27, 2006.
- [40] 박경화, 최혜정, “일부지역 치위생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과의 관련성,” 한국지



위생학회지, 제15권, 제2호, pp.279-286, 2015.

- [41] 원복연, 장계원, 황미영, 김설악, 오상환, 이경희, 장종화, “국내 치위생학 관련 임상실습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한국치위생학회지, 제19권, 제1호, pp.19-31, 2019.

### 저 자 소 개

오 나 래(Na-Rae Oh)

정회원



- 2010년 2월 : 계명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석사
- 2014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포항대학교 치위생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구강보건학, 예방치과학, 산업보건학

김 해 경(Hae-kyoung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과학과 보건학 석사
- 2014년 2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 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관심분야〉 : 치위생학, 보건학, 산업보건학